

2020신년
메시지

새로운 자의 특징

<고린도후서 4:16-18>

총회장 조영철 목사 (大阪北部教会)



소망의 해, 2020년 새 해를 맞이하여 재일대한기독교회 (KCCJ)에 속한 모든 교회와 교우들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평화가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신년을 맞이할 때마다 잘 인용되는 사도 바울의 서신 가운데 “그러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후5:17)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롭게 창조된 피조물이란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새로운 자,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In Christ)에 있다는 것은 사도 바울의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즉 새로운 자에게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특징이 있을까요?

먼저, 우리의 “겉사람” 은 낡아져 가도 “속사람” 은 날로 새로워져 갑니다.

성경본문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 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겉사람과 속사람의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겉사람은 나이가 들면서 약해지고 쇠퇴해져 갑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겉사람은 낡아져 간다고 해도 속 사람은 날로 새롭게 될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항상 낡아져 가는 겉사람보다는 속사람을 중요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속사람은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기에 고난이 찾아와도 오히려 강해집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확실히 믿는다면 겉사람이 낡아져 가는 것에 대해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속사람을 통해서 날로 새롭게 되어가야 할 것입니다.

두번째로, 일시적인 환난에 좌절하지 않고,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영광을 바라봅니다.

성경본문 17절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의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 앞에는 누구나 반드시 환난이 있지만 하나님을 믿고 새로운 자가 되면 지혜, 믿음, 능력 등을 통해서 피할 길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

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고전10:13)

앞으로 1년 동안 우리 앞에는 지금까지 생각해 본 적이 없는 환난이 엄습해 올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실히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자가 되었다고 한다면 일시적인 것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해 주신 영원한 것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일시적인 환난은 별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새로운 자의 특징입니다.

마지막으로, 눈 앞에 보이는 것보다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영원한 것에 주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본문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사도 바울은 새로운 자가 무엇에 주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은 순간적인 것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 보이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눈앞에 있는 부귀영화, 명예, 권력 등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눈 앞에 보이지 않는 것은 하늘에 있는 영원한 영광과 축복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자로서 사는 비결이요, 새로운 자의 특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여 새로운 자로서 합당한 생활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새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는 겉사람보다는 속사람에 관심을 갖고, 일시적인 환난보다는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눈앞에는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것이 주목해야 합니다.

바라기는 금년 한 해동안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신 새로운 자의 특징을 깨닫고, 이를 실천함으로 이 세상 뿐만 아니라 영원한 나라의 축복을 체험해 가는 우리 모두의 금년 1년동안의 신앙의 여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讚頌歌委員会より「子どもさんびか」が
発行されました。

主の祈り・使徒信条・交読文・十戒 集録
(いずれも韓国語・日本語)
一冊 1,000円
お問い合わせは総会事務局へ
電話 03-3202-5398



韓日対照讚頌歌販売



韓国の新讚頌歌版です。交読文も韓日対照で掲載されています。

- B6版変型・1483ページ
- 価格: 2,500円(消費税・送料込み)
- ※お求めは総会事務局へ

2020년을 맞아한 각 회장의 포부

광동지방회장 <김병철 목사> 은혜와 능력을 받는 관동 지방회가 되기를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친히 관동지방회 산하에 있는 모든 교회와 회원들과 성도들에게 임하시어 이와 같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은혜를 받으면 신앙과 목회가 재미있어 집니다. 관동지방회에 은혜가 임하므로 재미있고 행복한 지방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올 한 해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덮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은혜가 받게 되면 개인적으로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지만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히면 개인뿐 아니라 또 다른 이들에게까지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2020년 한 해는 은혜와 능력을 받는 한 해가 되어서 각 교회들의 문제가 해결되고, 더 나아가 전국에 흩어져 있는 재일대한기독교회 산하에 속한 모든 지방회와 교회원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관동지방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관서지방회장 <임명기 목사> 관서지방회 창립70주년과 함께 70주년표어 : '생명을 키우는 주님의 몸을 지향하며'



1950년12월4일에 오사카교회에서 개최된 관서지방회 창립총회로 설립된 관서지방회가 창립 7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1950년 설립 당시 7교회(京都、大阪、大阪北部、西成、川西、武庫川、神戸)였지만, 1985년에 서부지역 교회가 서부지방회로 분리되도록 성장하였고, 지금은 22개의 교회와 2개의 전도소가 함께 협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서지방회가 총회를 중심으로 작은 이들의 삶의 터전이요 삶의 희망이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 지금 우리가 해야 하지 않으면 안될 일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 교회의 자립화와 조직화 그리고 다음 세대의 육성을 위한 선교적 방안 작성은 존각을 다투는 시급한 과제일 것입니다. 무엇보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가 재일대한기독교회와 관서지방회의 일원이라는 소속 의식과 연대감일 것입니다.

지난 12월8일에 오사카교회에서 열린 관서지방회 창립70주년 기념대회는 우리를 하나로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70주년 선교비전을 채택하였습니다.

1. 지역사회와 적극적으로 관계를 맺어 이웃과의 연대를 통해 공생사회 추진을 지향한다.
2. 다음 세대 리더를 세우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3. 교회에 아직도 남아 있는 차별에 눈을 돌려 평등하고 공정한 교회, 조직 형성을 실천한다.
4. 민족이나 출신의 벽을 넘어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는 다채로운 신앙공동체를 지향한다.
5. 평화통일선교의 실천과 세계평화의 실현을 위해 노력한다.

2020년, 관서지방회 각 교회가 서로 도와가며 새로운 역사를 같이 써 나아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선배님들의 노고를 기억하며 새로운 역사의 주역으로 맡은 바 사명을 다시 한번 다짐하면서 신년인사를 드립니다.

중부지방회장 <정수환 목사> 하나님의 증인 사역을 감당하는 지방회



중부지방회는 1934년에 중북중회로 창립 총회를 열어, 해방 후 1965년에는 중부지방회로 새로운 걸음을 시작했다.

2024년은 중북중회로 90주년, 2025년에는 중부지방회 60주년을 맞이하게 된다. 이것을 기회로 중부지방회는 지방회 역사와 지방회 활동의 활성화와 재정을 재건할 계획을

진행하고 있다.

먼저 지방회내 각부(전도, 교육, 사회, 청년)의 역할을 명확하게 하고 활동의 충실화를 계획하고 있다.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중부지방회 각 교회의 협력과 교우들의 이해를 얻는 것이다. 무엇보다 중부지방회를 지켜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중부지방회 교우들과 공유하는 것이다. 중부지방회 전체가 역사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열심히 기도하며 역할을 완수하기를 바란다.

서부지방회장 <이중재 목사> 성령으로 하나되어 선교에 힘쓰는 교회로



주의 은혜와 평화가 총회에 속한 모든 교회에 풍성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서부 지방회는 15교회 및 전도소에 500명의 신도로 작은 지방회이지만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가 되어 서로 사랑하며 선교에 힘쓰고 있습니다.

소박한 기도의 제목이 몇가지가 있습니다.

다.

첫번째는 성령의 위로를 통해서 지방회가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의 모임이기에 성령에 의해서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이 맡겨진 선교의 사명을 충성을 다해 감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하나되지 못하고 갈등과 분쟁이 많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교회가 평화롭지 못한 것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만한 자가 있으면 반드시 분쟁이 일어납니다. 자신의 신앙이나 생각이 바르다고 생각하고 상대방을 정죄하게 되면 평화가 깨어지게 됩니다. 서부지방회의 모든 교회가 예수님과 같이 서로 겸손하게 섬김으로 평화가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두번째는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일본선교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만 성령이 능력이 임하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기도에 불이 붙으면 성령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구원받은 자가 많아 질 것입니다.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입을 열고 지혜롭게 복음을 전하게 되면 하나님이 지방회 모든 교회에 부흥을 주실 것입니다. 서부지방회의 모든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지역 사람들에게 기도 청찬받은 교회가 되어서 매일 성장하기를 기도합니다.

세번째로는 성령의 격려하심으로 서로 협력하기를 원합니다.

지방회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서로 협력하게 될 때 훨씬 은혜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지방회 행사에 참석하면서 느낀 점은 모든 신도들이 관심을 갖고 참석할 수 있도록 여러가지 방법을 연구하며 힘을 써야 할 것입니다. 지방회의 행사는 전도와 신앙의 성장과 성도의 교제에 초점을 맞추고 그 행사를 통해서 큰 은혜와 도전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서부지방회의 모든 교회가 모든 일에 힘을 합하여 아름다운 지방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서남지방회장 <김인과 목사> 기도로 활력 넘치는 교회로



지난 해 서남지방회는 別府教会와 下関教会, 젊고 좋은 교역자가 부임하여, 이제 무목 교회는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지진 피해를 입었던 熊本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아름다운 교회당을 건축하여 봉헌하였습니다. 서남지방회에 내려주신 큰 축복임을 확신합니다.

금년 2020년의 서남지방회는 희망가운데서 출발합니다. 어려운 과제도 있습니다. 지금 한·일간의 어려운 시기입니다. 우리는 정의와 평화의 주님을 믿으며, 이 어려운 문제들을 반드시 해결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하며, 영적으로 교류하며, 함께 선교의 일선에서 앞장서 나가는 교회, 이런 교회의 모습으로 서남지방회는 하나되어 나가는 목표와 포부를 세우고 싶습니다.

기도는 개인의 길을 열고, 가정의 어려움을 해결하며, 교회를 부흥시키며, 우리의 국가에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도록 인도하십니다. 서남지방회 모든 교회가 기도로써 꿈과 희망을 성취하는 2020년의 문을 열고 싶습니다. 각 교회가 계획적으로, 집중적으로 기도에 힘쓸 수 있는 지방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교회는 활력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의 활력은 교회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전도하며, 예배에 힘쓰다면 여기에서 나오는 교회의 활력은 은혜가 되어 각 가정에 넘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생명입니다. 이러한 서남지방회를 지향하고 싶습니다.

전국교회여성연합회장 <이현지 권사> 화해와 평화의 통로로써



2020년 신년을 맞이하여 총회에 연합된 모든 교회와 각 기관, 그리고 교우 여러분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이 풍성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작년 6월 전국교회여성연합회 창립7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전국여성회 70년의 역사는 사회에서 소외받은 약자들을 섬기며, 함께 기도로써 고난을 이겨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에 맞는 미션을 주셨고, 이길수 있는 힘과 지혜도 주셨음을 신앙의 선배들을 통하여 배웠습니다. 우리들도 후세에 이어가는 신앙인으로서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전국여성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70주년을 기념하여, “주님께 접붙임 바 된 자로서 ~새 시대를 펼쳐가는 교회여성~”의 주제와 부제를 내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울 한해, 전국여성회는 무엇에든지 적극적으로 힘있게 연대하며, 특히 올해는 동경 올림픽이 개최 되는 가운데, 화해와 평화의 통로로써, 주신 미션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며 비전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확실하게 전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 여성이 솔선해서 막힌 담을 허물기 위해 필요한 것은 공감하는 것 뿐만 아니라, 공감할 수 없더라도 이해하려고 하는 성숙한 신앙에 바탕한 행동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울해야말로 화해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전국장로회 회장 <이대중 장로> 작은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만물의 창조주이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번에 장로회 회장이라는 큰 역할을 맡게 돼서 두려움을 갖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는 날을 지내고 있습니다. 장로로 세워졌을 때 느낀 경외와 감동을 다시 생각하면서 더욱 겸손한 마음으로 시작하고 싶습니다.

전국 장로님들도 이 부족한 자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제일대한기독교회를 위해 주님의 나라를 위해 힘을 모아 갑시다.

장로회의 역할 중 하나에 총회에 필요한 안건을 토론하고 헌의안으로 제안하는 일이 있습니다. 총회 상황은 낙관시킬 수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시급한 변혁을 최우선으로 하고 동시에 작은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작은 목소리와 함께 걷기 위해 기도하는 것, 그것으로 주님이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 주신다고 믿습니다. 목사님들도 장로회에 힘을 실어 주십시오.

제일대한기독교회의 역사는 이국 땅에서 사는 기류민의 역사이고 그런 우리와 함께 걸어 주신 주님의 역사이기도 한 것을 믿습니다.

일제 식민지 지배, 해방과 분단, 입국관리법의 차별, 많은 고통과 시련을 우리 신앙의 조상들은 겪었고 또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캐나다에서 온 선교사가, 조선에서 온 선교사가 설교를 하고 출신 교단이 다른 성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린 역사는 지금과 전혀 다를 바 없습니다. 전혀 다르지만 한나라는 모습이야 말로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교회인 줄 믿고 주님의 십자가를 우려보며 늘 기도와 감사, 기쁨을 잊지 말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청년회전국협의회 대표 <이지희> 주님의 기쁘시게 하는 청년



전협의 활동은 그 해의 대표 및 임원들에 따라서 전혀 분위기가 다른 활동이 됩니다. 올해는 제가 대표가 되어, 어떠한 1년으로 하고 싶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먼저 떠오른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 뜻에 응답(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판단기준을 모두 하나님께 맞추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지 어떨지를, 임원 작자가 항상 생각하면서 일해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매일의 기도, 찬양, 성경말씀을 중요시하고, 청년담게 고민도 하고 멈추어 서기도 하겠지만, 마지막에는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수 있는 1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2019년 9월부터 9명의 청년이 모여서 시작된 전협, 성경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를 잊지 않고 한 걸음씩 걸어 가면 반드시 보답해 주시며, 선한 방향으로 인도해 주시며, 모든 근심과 고민을 제거해 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청년”을 목표로 추진해 가고자 합니다.

항상 저희 전협의 활동을 기억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목사님과 성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2020년도 잘 부탁드립니다.

<2020年手帳訂正・追加>

- 朴憲郁 牧師 ☐ hwpark1@wine.plala.ro.jp → hwpark1@wine.plala.or.jp
- 枚岡教会 : 協力長老 李相萬 527-0055 寝屋川市御幸東町10-2-202 ☎ 090-7554-1643
- 三沢教会 Tel/fax 0176-27-1028

- 関西地方会所属教役者
 - 朴龍洙 2851RollingHillsDr,#183FullertonCA92835 ☎ +1-714-853-9886
 - 李教錫 638-802 경남고성군 성내로 71-12 대영apt.201 ☎ +82-10-2969-0926
 - 朴喜煥 545-0021 大阪市阿倍野区阪南町4-16-10
 - 李元重 606-8203 京都市左京区田中関田町2-26-2-502 080-3841-9121

관서지방회

창립70주년 기념대회 개최 이어서 기념 심포지움과 축하회도

관서지방회는 지난 2019년12월8일 (둘째 주일) 오후3시부터 오사카교회에서 ‘생명을 키우는 주님의 몸을 지향하여’ 라는 주제로 창립70주년 기념대회를 제1부 기념예배, 제2부 기념심포지움, 제3부 축하회로 개최했다.

제1부 기념예배에서 총회장 조영철목사가 <우리가 지향해야 할 것> (빌3:12-14) 의 제목으로 설교하고 증경총회장 양형춘목사의 축도가 있었다.

제2부 70주년 기념심포지움은 ‘70주년 선교비전을 관서지방회 현위치에서 생각한다’ 라는 테마를 가지고, 고경미권사(관서지방 여성회장), 양양일장로(오사카교회), 이신삼 (오사카니시나리교회), 김중현목사(전 총회장)의 4 명의 패널리스트로 개최하면서 관서지방회 70주년 선교비전을 메인 테마로, 지역사회와의 관계방법, 차세대 리더 지원, 교회 내 차별, 민족을 초월한 신앙 공동체, 평화통일선교 등의 부주제에 대해 각 패널리스트들이 문제점과 타개책을 뜨겁게 발표하였고, 발표 후 질의 응답도 있어 대회장이 고양되었다.

제3부 축하회는 관서지방 성가대연합의 특별 찬양으로 시작되어 일본그리스도교회 킨키중회 서기 나카이에 준(中家盾)목

사와 서부지방회장 이중재목사의 내빈 축사가 있었다. 관서지방회 소속 교회 여성회가 준비한 요리를 나누면서 화기에애한 가운데 축하와 환담의 시간을 가졌다. 관서지방회 창립70주년 기념대회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마칠 수 있음에 협력해 주신 모든 교회에 감사를 드린다.

특히 70주년 기념사업 특별기획으로 관서지방회를 오랫동안 이끌어 오셨던 명예 장로들과 현역 장로들의 귀중한 증언, 교훈, 체험을 ‘70년의 발자취를 기억하며’ 라는 기록으로 대회 책자에 게재하였다. 창립70주년을 맞이한 관서지방회의 선교비전을 이야기할 때에 믿음의 선배들의 열정을 어떻게 차세대에 계승해야 하는지 우리의 사명이 요구되고 있다.

(70주년기념대회 준비위원 정혜숙)



방문수기

조선그리스도교연맹 방문기 <3>

오사카교회 정연원 목사

5. 봉수교회 주일예배에 참석하다

비가 오는 날씨였지만 대표단의 도착을 <조그런> 위원장 강명철목사와 관계자들과 봉수교회 송철민 담임목사 등 여러분이 기쁜 얼굴로 맞이해주었다. 접견실에서의 인사를 마치고 예배당에 들어서서는 순간 울려나오는 성가대의 찬양소리는 가슴을 울렸다. 200명 정도의 교우들이 비가 오는 날씨이지만 함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여 있었다.

예배의 시작은 성가대의 송영 ‘빛나고 높은 보좌와’ 회중이 함께 ‘사랑하는 주님 앞에’ 를 함께 찬송하였다. 大阪教会도 자매교회나 합동예배를 드릴 때 곧잘 부르던 찬송인데 이 찬송을 선택한 것은 대표단을 맞이하는 봉수교회의 배려라는 생각이 들었다. 대표기도는 여성분으로 허영희장로가 간절히 기도하였다. 교우들은 중간 중간에 ‘아멘’ 이라고 화답하는 모습도 자연스럽게 보였다. 김순옥권사께서 성경 출애굽기 17:8-13 을 봉독하였고 이어 30명 정도의 성가대가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를 찬양하였는데 매우 힘이 있었고 찬양의 수준이 대단히 높았다. 송철민(宋哲民) 담임목사가 <승리의 비결> 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하였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나와 르비딤에서 아말렉과의 전쟁이 있었는데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승리를 한 내용을 중심으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실 때에 승리할 것이며, 피곤에 지친 지도자 모세의 손을 들어주는 협력자의 역할 또한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해 주셨다. 예배에 참여하기 전에 봉수 교회에서는 예배 시간에 헌금을 드릴까? 하는 궁금증이 있었다. 봉수교회는 목사님의 설교 이후 헌금 시간을 가졌다. 이후 성가대와 남녀 중창 <사랑의 종소리>,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와 합창 <내 평생에 살아온 길> 등, 25분 정도의 음악회 수준으로 찬양을 통해 예배 참석자들이 은혜를 나누었다. 봉수교회의 예배의 특징은 교우들이 함께 드리는 찬송이 우리 교회보다 많았다. <나 어느 곳에 있던지>, <눈을 들어 산을 보니>, <주여 복을 비옵나니> 그리고 폐회찬송이 있었다. 송철민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고 곧 이어 인사의 시간을 가졌다. 먼저



‘총회’ 를 대표하여 총회장 김중현목사가 봉수교회 교우들에게 인사 말씀을 전하였다. 재일동포의 아픔을 이해하고 있는 같은 동족으로 힘찬 박수로 환영과 격려를 해주셨다. 이어 일본그리스도교협의회(NCCJ)를 대표하여 동아시아 화해와 평화위원회 위원장인 이이즈카 타쿠야(飯塚拓也)목사와 2명의 대표가 일본어로 준비한 사죄문을 읽고 총간사 김성제목사가 통역을 하였다. 제법 긴 문장이었으나 봉수교회의 교인들과 ‘조그런’ 관계자들은 매우 진지하게 경청을 해주었다. 강단에서 함께 인사를 마치고 예배와 모든 행사를 마치고 예배당을 나오는 대표단 일행을 위해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의 찬송을 반복해서 계속 불러 주셨다. 일본 대표들의 손을 잡아 주시는 교우들, 동포들을 향한 환한 웃음과 기쁜 얼굴로 다시 만나자고 계속해서 인사를 나누었다. 예배당을 걸어 나오면서 교우들의 얼굴을 보면서 감사의 눈물이 말없이 흘러 내렸다.

예배에서 느낀 소감 가운데 하나는 젊은이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하는 것과 1990년에 발행한 <성경전서>, <찬송가>는 당시 조선기독교도연맹이 만들었고 교우들이 성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강단 정면은 작은 돌로 만들어져 있고, 설교단, 성가대석, 교우들이 앉는 의자들도 매우 낮익은 것이다.

북녘땅에 세워진 봉수교회와 십자가, 북녘 주민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구심점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방문단은 봉수교회 교우들과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